

네가 내 말을 받으면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위해 기도를 오래했습니다. 예배에 찬양을 통해 헌신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절대 손해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주신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란다. 제목은 네가 내 말을 받으면 이다. 말씀외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지구도 자기 혼자 존재가 아니고 태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면 지구도 돌지도 않고 해가 뜨지도 않아요. 해를 만드신분도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며 모든 것이 그에 의해서 돌아가니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는가 알면서 안되니 언약을 주신 것이다.

1. 네가 내 말을 받으면

오늘은 잠언 말씀은 속담이라는 말이다. 대개 행위로 끝나거나 무속적, 사단적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 잠언은 영적인 잠언이고 육신에 대한 행동의 말씀이 담겨있다. 율법의 핵심은 근본 약속의 피제사, 그 안에는 육신적으로 하라는 것이 들어있다. 오늘 잠언도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 당연히 성경전체 메시지와 반드시 연결이 된다. 성경 어느책에도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기록한 곳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말만 반복적으로 한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이다. 영적으로 받아야 할 이유는 전부 영적문제 이기에 원죄 때문에 모든문제가 와서 그뒤에 사단이 지금도 역사한다. 눈에 안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면 바보이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것을 모르고 살다가 복음을 알고 난뒤에 눈을 뜬 것이다. 이것을 알고 난뒤에 진짜 언약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고 문제가 무너지게 된다. 인생이 달라진다. 그것이 들어온 말씀이다. 이미 있는 말씀이 들어와 내것이 되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란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미 써놓았다. 바뀌지 않는다 새로 할 필요도 없다. 써놓았다. 그게 내게 들어와 내것이 되는 시간표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5-6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온다. 1-4절은 조건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축복을 하시겠다는 것이다. 그 조건중에 첫째가 1절에 네가 내 말을 받으면, 1절의 표현은 네가 내 아들이... 우리를 말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간진하면, 보배를 찾듯이 그것을 찾으면 이런 조건이 있다. 그말을 받아서 네가 내 말을 진짜 받으면... 1절에 네가 내 아들이 네가 내 말을 받으면 내계명을 지키면... 계명하면 일단 놀란다. 착각이다. 첫째는 계명은 축복이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이다. 네가 이거 지키면 축복하겠다는것이지 안지키면 벌 주겠다는것이 아니다. 지키라 축복하겠다는 것이다.

말씀을 받으면 계명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누리는 것이다. 말씀을 받으면 우상을 섬길 힘이 생긴다. 5-10 인간관계 잘해야 한다는것인데 말씀을 받으면되는 것이다. 2절에 네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면 3절 지식

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려고 소리를 높이며 기도하며 4절에 은을 구하는것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 계명을 지키면 5절에 약속하셨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를 존경하고 높이고 두려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네가 알게 할 것이다. 조건은 네가 내 말을 받고 그 힘으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 인생에서 보여주겠다. 네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는 복음모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었다. 복음을 알고 깊이 알게 되었으나 알수록 더 모르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안다고 해도 수박 겉핥기로 알지 얼마나 알겠냐, 네가 만일 이렇게하면 네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겠다. 7절에 그는 정직한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태도가 온전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언약이 정확한자로 해석을 해야 한다. 전에 히스기야를 보면서 정직에 대하여 말했지만 더하거나 빼하는 것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고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 약속의 피는 저주에서 해방이라는 것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 약속의 피는 반드시 뱀의 머리를 깎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다. 이것이 정직한 자다.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도 마찬가지이다. 당연히 윤리, 육신적 행위도 포함이다. 그러나 언약에 정직한 자는 완전한 행실을 할 수있다. 언약에 대하여 가감하게 받는자가 온전한 행실을 할 수있는것이고 영적인 행실의 1번은 진짜 그대로 믿고언약으로잡는 것이다. 그것을 매일 고백을 하는 것으로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끝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 온전한 영적행실이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놀랍지않은가 성경 전체가 그렇다. 잠언이라서 다르게 말하지 않았다. 성경 전체로 보니 언약의 사람에게 예외없이 정직이는 온전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 8절에는 이런 말씀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왜 이런 원리대로 하나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당신의 정의길을 보호, 정의의 길은 언약이다. 그래야 사람이 사는 것이다. 세상에 무슨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든 정의의길. 언약의 길로 가는 사람을 보호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에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없다. 하나님이 돈이 많으면 감동을 받으시겠는가? 맛있는 빵이 있으면? 하나님은 한 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언약에 정직하고 완전한 지혜를 가져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내 인생, 직업, 미래도 정복할 것이다. 완전한 지혜를 그래도 무슨일이 일어난다. 사단이 살아있으니 방패가 된다. 9절에 보면 그리하면 네가 공의와 정의가 정직 곧모든 선한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 공적인의 그리스도안에 있는 의, 정의와 정직 이모든 선한길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준 축복을 누리는 것은 완전한 지혜를 누리게 된다. 왜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거야 네가 이렇게한다면 그중에 첫 번째가 네가 진짜 내

말을 받으면 간단하다. 10절에 이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식이 네 안에 들어가 네 영혼, 마음, 생각을 즐겁게 하여 소망을 가지게 한다. 이때 하나님의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 살 것이다. 11절에 그 언약안에서 네가 근신하는 것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이렇게 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것이아니고 근신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심스럽게 그것이 너를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명철이 너를 보호하게 하신다. 명철은 다 안다는 것이다 다 깨닫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너를 보호한다 실수 안한다 이말이다. 12절에 하나님이 약한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의 길에서 너를 건져내실 것이다. 사단이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축복을 결과적으로 너를 사단에게서 건져낸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성경전체의 약속과 꼭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는 문제를 보고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유가 없다. 내가 나의 때에 너를 건질 것이다. 단 이것을 하라. 네 말을 받으라. 그 능력으로 내가 말한 그 계명을 하라고 혹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지켜라. 그리고 나의 지혜가 네게 임할 것이다. 너 똑똑한 사람이 된다. 공부를 못해도 이유는 내 명철이 네게 임한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내 지혜가 너에게 들어가니 까 네가 세상도 알고 미래도 알게 되는 출발이 내 말을 받아라 내 아들이 네가 만일 내 말을 받으면... 놀라운 말씀이다. 본문 자체는 길지 않지만 내용은 끝이 없을만큼 깊다.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네게 완전한 지혜를 즐기고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길을 보존하고 지켜 줄 것이다. 당연히 네 영혼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고 즐겁게 되어 네 인생을 사단에게서 건져주신다는 것이다. 내용은 많은 것 같지만 항상 간단하다. 처음 말씀이 되면 나머지는 시간표에 따라 누리면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능히 계명을 지키고도 남고 짐이아니고 누림이 된다.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면 지혜와 능력과 명철이 나타난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나타날것에 대하여 설명, 약속을 해놓았다. 이것이 있으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이것을 모르면 누림이 부족하다. 언약이 만일 깨끗하게 깨달아버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완전하게 누릴 것이다. 다른 생각이 틈이 생기겠는가? 그것이 명철이다. 언약안에 있는 지혜, 명철을 누릴 수있다. 힘을 써서 오직이 아니고 당연히 오직이되는 것이다. 분명히 유일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된다. 세상이 70억에게 유일한 응답을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70억 인구가 한나라에서 각각 다른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계명을 누리게 된다. 여기서 많은 응답을찾을 수 있다. 능히 누릴 수 있다. 십계명을 제대로 지켰다. 놀라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뱀머리 깨지는 것이다. 그게 본래 십계명의 목표다. 네가 만일 나와 말씀이 통하여 지키면 네 인생에 뱀머리를 박살 내겠다는 것이 십계명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부터 인생이 달라졌다. 잘 아는 내용이다. 아브라함, 모세도 그랬다.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고 거기이기에 따라오라고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분명히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 축복을끝까지 받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2.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말씀을 받으면 실질적 영적인 사람이 된다. 우리 주위에 부족하게 살다가 말씀을 받고 사람이 바뀐자이다. 오늘 리카르도 목사님이 미국 복음화를 위해 할말이 있다고 왔다. 앤세나다에 미국 교회에 연결이 되어서 문이 넓다. 이분도 마약 7년간했다. 어느날 복음받고 바뀐 것이다. 이것이 메시지이고 증거이다. 이분 교회에 전에 말한 것 같이 히로뽕 20년간 중독자가 복음받고 떨어졌다. 이 사실을 알고 보니 복음을 받고 감옥에서 전도했는데 한 여자가 은혜받고 답을 얻으니 그 마약을 더 이상하지 않게 되었다. 이분의 친구가 마약중독을 끊은 것을 보고 은혜를 받은 것이다. 시험을 한번 해보았다고 히로뽕 맛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친구에게 가서 말하기를 가짜 주지 말고 진짜를 주라고 해서 한번 더했는데 아무반응이 없다는 것이다. 그때 깨달았다 아 끝났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문제 해결자. 가는데마다 증인이다. 우리 멕시코 처음 갔을 때 증인으로 불렸다. 한시간 간증했다. 우리가 칭유, 2월 첫주부터 금요일에 치유예배 할것인데 이런 증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어떻게 복음, 말씀, 복음은 말씀이고 핵심이 복음이다. 이 복음 가진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리카르도 목사님에게 이것이 들어오니 처음 만났는데 말씀이 들어가니 사명, 종전에 말했던 마약중독자 이름도 리카르도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것인지 방향을 말씀으로 잡았다. 우리 주변에도 모든 것 내려놓고 신학교 가는 사람 있잖은가 저도 그렇다 처음에 공만한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못이긴다. 2년후에 나도 모든 것 정리하고 신학교 갔다 성경에 모든 시대적인 인물들은 다 그랬다. 그들은 말씀을 받은 그날부터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었다. 이런 선택된 사람이 없어서 재앙 때문에 다 죽었다. 니느웨는 재앙이 약속된 도시였다. 이 말씀을 받은 요나가 도망가다가 결국 가서 복음을 전했다. 다 살아났다. 짐승도 전부다 금식했다. 이스라엘 노예 재앙 있을 때 모세에게 말씀 한마디 주셨다. 나가서 내 언약 희생제사를 회복하라 그 말씀 한마디가 이스라엘의 노예 재앙을 해결되고 인생 재앙도 모세는 해결 받았다. 그러나 소동 고모라성은 멸망했다. 이유는 말씀을 받은 자가 없다 재앙이다. 사람, 짐승 다죽었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탔다. 언약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말하고 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포인트다. 하나님이 네가 만일 내 말을 받으면 이라고 하셨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다 따라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네가 내 말을 받으면 이 놀라운 축복이 네 것이 될거야 너 하나님을 알게 된다. 너 완전한 지혜를 갖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말년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지만 그 마음에는 정직한 자였다. 다시 한번 말씀을 받기를 바란다. 올해는 기도하는 해이다. 하나님 나도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개인의 응답을 받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